

## 대학가 클럽웨어(Club Wear)에 관한 연구

배 정 민\* · 김 영 삼\*\* · 정 흥 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lub Wear around University

Jungmin Bae\* · Young-Sam Kim\*\* · Heungsook Grace Chung\*\*\*

M.A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4. 11. 29 투고)

#### ABSTRACT

Stepping in the 1990s, we has lived under the time of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 as well as faced the diffusion of pop-culture. The border between subculture style and hi-fashion has been blurred since beginning of 1990s. By this reason, recognizing the power of influence and importance of subculture style, we will try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vision reflecting the cultural background to analyze the subculture style. We will conclude this article with discussing the club-culture which is settle as one type of culture. Enjoying the club-culture, clubber tries to escape from the structural estrangement putting by the magical and symbolic meaning through creating their own style, and endowing their life the meaning. They make liquid club wear targeting at general young culture, pop culture, and subculture as well as hippies, Mods, funk. The Club wear around University sort out Hiphop Style, Casual Style, Mix and Match style. As at the club the hiphop music was played, the hiphop style dress becomes the club ware. Especially, training style clothes which is easy to dance has become the everyday dress, not just restricted in the indoor dress.

Key words: subculture(하위문화), club-culture(클럽문화), club wear(클럽웨어), clubber(클러버)

#### I. 서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관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패션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시작했고 가장 큰 패션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젊은이들의 정서는 아주 다

른 종류의 것이 되었고 동시대 어른과 구별되는 의상 스타일과 룩을 만들어 내고 주류 패션에 강력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대중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하위문화 스타일의 영향력과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하위문화 스타일을 분석함에

있어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지금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클럽 문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클럽문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홍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클럽웨어 스타일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클럽문화의 바탕이 된 하위문화 스타일을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클럽문화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하위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데 살펴보고 최근의 하위문화 중의 하나인 클럽문화에 대해 그 의미와 클럽문화를 이루는 새로운 스타일인 클러버(Clubber)들의 새로운 룩에 대해 분류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했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우선 하위문화의 개념과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는 문헌적 연구로서 하위문화의 개념과 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하위문화 중의 하나인 클럽문화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하여 클럽을 즐기는 클러버들의 복식을 인터넷이나 직접 클럽을 찾아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클럽 문화를 즐기는 클러버들의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클럽문화의 바탕이 된 하위문화의 개념

하위문화(Subculture)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total culture), 또는 주요한 문화(main culture)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회든 지배적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여러 개의 문화들이 형성되며 여기서 중요한 문화적 형식이 계급 문화이다. 하위문화는 이러한 지배 문화에 대한 하위 집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더 큰 범주의 계급문화의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그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sup>2)</sup> 특정의 문화 집단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 집단을 구성하려 의도하며 이러한 집단 특유의 성격을 반영하는 차별적 형태들의 소수 집단화하려는 경향이 특정한 하위문화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정의는 그 용어가 1940년대에 생긴 이후로 수차례 변화하여 1990년대 이후 하위문화의 개념은 '다른 사회 집단

의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분 짓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가장 폭 넓고 기본적인 정의로 조정되었다.<sup>3)</sup> 즉,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전체로서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가 곧 하위문화이다. 이것은 전체사회의 속의 특정한 사회층이나 집단을 담당자로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및 가치관으로서, 이른바 '문화 속의 문화'라 할 수 있다.

### 2. 클럽문화의 바탕이 된 20세기 하위문화의 사적 고찰

20세기의 하위문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대부터 존재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클럽문화의 바탕이 된 하위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1960년대

##### (1) 런던의 록커(Rockers)

1950년대 로큰롤의 인기와 함께 모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이 움직임의 절정기는 1962-1964년으로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면서 계급 청소년들은 제도권의 환상에서 깨어나 로큰롤과 모터사이클에 열광하며 만족을 얻었다.<sup>4)</sup> 반항을 상징하는 동시에 실용성을 내포하는 모터사이클 재킷과 가죽점퍼는 개인이 찾는 가장 좋아하는 부속물로 장식되었다.

이후 가죽패션은 펑크, 헤비메탈, 패티쉬 클럽 스타일등 더욱 거칠고 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변했으며 언더 그라운드 가수들이나 반항적이고 거친 외형의 표현으로 애용되고 있다. 클럽문화에서도 가죽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런던의 모즈(Mods)

'Modernist'의 준말로 이들은 테드 힙스터 비트닉에서 영향을 받은 중산층 백인들의 스타일이다. 노동자 계급의 문화였으며, 옷에 대한 집착이 특징적이다. 주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밤에 외모나 여가 선용의 선택으로 카나비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술집과 클럽을 많이 애용하였다.<sup>5)</sup> 밝고 화려한 색상을 선호하였고 투톤의 모헤어 수트에 뒷트임이나 옆트임이 깊은 박스 재킷과 캐주

얼한 헤링본 재킷을 착용하기도 한다. 모즈가 했던 생활 방식은 낮과 밤의 세계가 달랐으며 멋진 옷을 차려 입고 밤문화를 즐기면서 보상받으려 하였다. 역사적인 모즈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클럽문화 역시 낮과 밤의 문화를 달리 즐기는 현대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낮에는 현실에 충실하며 밤에는 자신만의 취향과 도피처로써 클럽을 즐기는 것이다. 비록 젊은층에게 쾌락과 향락주의 풍조를 야기시켰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모즈의 삶 역시 현대의 클럽문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3) 미국의 싸이키델릭(Psychedelic)

싸이키델릭은 환각을 일으키는 LSD 마약에 둘러싸여진 반문화에 관련된 1960년대 중반의 젊은이들의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절충적이며 과시적이었으며 LSD에 이끌린 환각에 의해 영감을 받아, 의복은 매우 다채롭고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비슷한 패턴으로 칠하였다.<sup>6)</sup> 이 움직임의 아이디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시대의 분위기가 국제적이었기에 모든 언더그라운드들을 휩쓸었으며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친 언더그라운드 문화들이 발생하였다. 적을수록 좋다는 모더니스트의 미학에 반대였으며 스카프 구슬 밴드 등 많은 드레스들이 점점 환상적이고 여성적이 되어갔다.

클럽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문화로 환각에 영감을 받아 퇴폐적이고 환상적인 클럽문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클럽에서의 현란한 불빛과 화려한 의상은 지금도 싸이키델릭한 요소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4) 미국의 히피(Hippies)

1966년 약 3만명이 운집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 히피시대를 예고 하였다. 히피의 주된 관심사는 평화 신봉의 상징으로 소극적인 저항이라 할 수 있는 반전, 반월남전쟁 운동이었고 정신적 신비적 지식주의에 몰두하였으며 현대 문명의 이기와 물질 만능에 관한 저항으로 학교 교육을 거부하였다.<sup>7)</sup> 또 가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였고 현실과 이념의 모순에 심한 갈등으로 환각제와 싸이키델릭한 문화에 도취하였으며 인공보다 자연, 개인적 쾌락주의보다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었다. 낡고 오래된 의류를 착용하였고 모직으로 된 타이, 트위드 재킷 낡은 벨벳의상, 너덜너덜한 청바지, 긴 케이프, 술이 달린 튜닉 짐시풍의 드레스등을 착용했다.<sup>8)</sup>

히피의 스타일은 레이어드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나의 특성보다는 각 스타일을 합성하는 스타일이다. 이는 현대의 주된 하위문화에 나타나는 스타일이며 클럽문화에 나타난 클럽 웨어 역시 하나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타일을 믹스 앤 매치 함으로서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2) 1970년대

### (1) 런던의 펑크(Punks)

펑크는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 소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sup>9)</sup> 영국과 서구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년 하위문화였으며 히피의 낭만주의와 사회적 지위 결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들은 히피에 반대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대신 환각제와 인공적인 것을, 사랑과 평화 대신 공격적인 강인함을, 카프탄 대신 검정 가죽 재킷을 입었다. 의상에는 지퍼가 많이 달고 다녔으며 금속 징 다양한 배지들, 작은 펜던트, 가죽끈 등을 무질서하게 달고 다녔다. 초기의 펑크 스타일은 표면적인 스타일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거부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템이나 의복 스타일에서 국제적인 패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피어싱, 타투와 찢어진 스타일 등은 클러버들의 클럽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헤어염색의 발달로 더욱 화려하게 그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펑크는 클럽문화의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3) 1980년대

### (1) 런던의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

글램의 영향을 받아 연극에서 사용되는 의복을 수용하는 새로운 클럽과 잠지족이 생겨나서 시작되었다. 블리츠라는 클럽에서 성공을 거두어 매스미디어가 블리츠 키즈(Blitz kids)라는 애칭을 만들었다. 이시대의 새로운 하위문화의 탄생 뿐만 아니라 후에 클럽문화의 새로운 발달을 선호하였다.<sup>10)</sup> 이들은 프릴달린 셔츠, 브레이드로 장식한 자켓과 스코틀랜드 킬트 등 현대 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 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21세기 주된 하위문화의 하나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복을 그대로 제작하는 코스프레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코스프레 스타일의 근간이 되는 하위문화가 뉴 로맨틱스

라고 볼 수 있다. 클럽문화를 즐기는 층 역시 코스프레 문화를 즐기는 층과 겹침으로 클럽문화에서도 일부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인물의 의복을 그대로 모방하고 나타난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2) 영국의 고스(Goth)

음침한 고딕의 이미지를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결합시켰다. 고스는 핑크의 페티시한 관심을 보다 더 과장되게 번역하였다. 고스 스타일은 시각적으로 날카롭고 유해하게 보이며 스타일리쉬하다. 주로 검은색의 벨벳 코트, 레이스드레스 같은 의상과 짙은 눈 화장을 한 얼굴 화장의 스타일을 구성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로맨틱하고 스타일적인 상상력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그 스타일은 불안과 고뇌같은 인가적 고통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sup>11)</sup>

고스 스타일은 퇴폐적이고 파괴적인 음울한 환상의 표현은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에 주류문화에 채택되어 상품화되진 않았지만 목걸이나 팔찌 등 악세서리에서 표현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클럽을 즐기는 클러버들 역시 언더 그라운드 음악을 즐기고 독특하면서 환상적인 악세서리를 착용함으로 고스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 (3) 런던과 파리의 퍼브(Perve)

pervy라는 말은 pervert(성도착자)에서 왔다. fetish한 단어는 부적 마법을 의미하는 fetico에서 유래되었다.<sup>12)</sup> 퍼브는 밤 위험 죽음 죄 그리고 성적 도발을 일으키는 검정색을 선호했다. 검정색 가중의상과 하얀 피부의 대조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주로 주류 패션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지아니 베르사체, 장 폴고띠에 등의 의상에도 자주 보여진다.

21세기에 들어 페티쉬(Fetish)의 의상은 본래 성적 도착적인 면이 강한 페티쉬적인 함의를 벗어나 매력적이고 도발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적인 경향으로 클럽문화에서 역시 그러한 면의 통합적으로 나타나 일부 클러버들에게서 도발적인 의상으로 댄스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4) 미국의 비보이와 플라이걸(B-boys & Flygirls)

B-boy는 Break Boys의 약자로 랩뮤직에 맞추어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청소년 집단을 의미하고

Flygirl은 옷을 잘 차려 입은 매혹적이며 섹시한 소녀들을 일컫는 말이다.<sup>13)</sup>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곡예를 하듯 바닥을 뒹구는 브레이크 댄스는 그들만의 하위문화 정체성을 정립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발전시켜나갔다. 이 스타일은 힙합의 현장에서 흑인 소녀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으로 거친 춤동작과 적합한 움직임이 쉬운 운동복과 트레이닝복 스타일로 주로 흰색과 검정색 위주였다. 스트레치 소재의 다리에 딱 붙는 반바지와 험렁한 양말, 금팔찌와 커다란 링 귀걸이가 특징적이다.




클럽문화의 장소적인 바탕인 클럽에서 힙합음악이 흘러나오며 따라 힙합 의상도 클럽 웨어의 의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댄스를 즐기기 쉬운 운동복과 트레이닝복 스타일은 실내복에서 벗어나 일상복으로 나타났고 클럽 웨어를 이루게 되었다.

## 3.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하위문화 스타일의 특성

한국에 하위문화는 1960-1970년대 서구의 하위문화의 형태를 놓고 보면 한국에서 하위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우리 문화에서 핑크적이고 히피적인 주체형태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서 서구의 극단적인 실천들을 찾긴 어렵고 그나마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위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의미를 앞서 기술한 대로 주류문화로부터 주변부화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당한 것으로 도출된다면, 오히려 한국의 하위문화의 존재는 역사적 하위문화가 생성되었던 역사적, 문화적 조건의 맥락 속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한국의 하위문화는 서구에서는 자명하지만 우리에게만 아직 낯설고 자명하지 않은 다양한 주체형태들의 삶과 정체성, 스타일에 대한 통합적인 최초의 관심을 담고 있다. 1990년대 하위문화는 문화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역사적으로 일정한 진화와 변화의 과정을 거친 서구 하위 문화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일상 영역으로 나타나면서 선택과 지지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sup>15)</sup>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과 에스닉의 영향도 있었다. 흑인 하위문화 스타일도 모든 인종의 젊은이들의 의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의 하나이었다. 신체, 섹스, 성은 1990년대 패션의 구성에서 중심적 이슈였으며 그것은 이 시대의 가장 의미 있는 스타일의 하나로서 하이패션에서의 페티시 패션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sup>16)</sup>

〈표 1〉 20세기 후반의 하위문화

	시대 배경	특징	
록커(Rockers)	1960년대 런던	록큰롤과 모터사이클에 열광 모터사이클 재킷과 가죽접퍼 거칠고 반항적인 외형의 표현	 <p>〈그림 1〉 rocker : Zashe Takamura(1997)</p>
모드(Mods)	1960년대 런던의 West End	과장을 삼가는 스타일 옷에 대한 집착, 자아도취 밝고 화려한 색상 선호	 <p>〈그림 2〉 mods : Zashe Takamura(1997)</p>
싸이키델릭 (Psychedelic)	1960년대 미국	환각문화 환상적 여성적	 <p>〈그림 3〉 psychedelic : Zashe Takamura(1997)</p>
히피(Hippies)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각 집단을 합성하는 식의 레이어드 스타일	 <p>〈그림 4〉 hippies : Zashe Takamura(1997)</p>
펑크(Punks)	1970년대 런던	히피에 반대 인공적인 것, 공격적인 강인함 선호	 <p>〈그림 5〉 punks : Zashe Takamura(1997)</p>
뉴로맨틱스 (New Romantics)16)	1980년대 런던	연극에서 사용되는 의복 수용	 <p>〈그림 6〉 new romantics : claire wilcox(2004)</p>

<p>고스(Goth)</p>	<p>1980년대 영국</p>	<p>퇴폐적, 파괴적 환상의 표현</p>	 <p>〈그림 7〉 goth : Zashe Takamura(1997)</p>
<p>퍼브(Perve)</p>	<p>1980년대 런던, 파리</p>	<p>성적 도착적인 면</p>	 <p>〈그림 8〉 perve : Zashe Takamura(1997)</p>
<p>비보이(B-boys)와 플라이걸(Flygirls)</p>	<p>1980년대 미국</p>	<p>힙합의 현장 움직이기 쉬운 트레이닝복</p>	 <p>〈그림 9〉 B-boys : www.naver.com</p>

### Ⅲ. 흥대지역 클럽문화

#### 1. 클럽문화의 개념

‘클럽문화(Club Culture)’는 댄스 클럽이 자신들의 상징적인 축과 사교 클럽의 역할을 하는 청년문화에 붙여진 구어체적 표현이며 이러한 영역적 연계성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옷차림, 댄스 스타일, 음악 장르와 불법적인 의식을 공유하는 하위문화들의 집합체이다.<sup>18)</sup> 클럽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통된 관심사를 추구하는 장소로 등장해 특히 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왔다. 클럽문화에 참가하면서 구성원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그 문화적 의미, 가치, 취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된다. 특정한 하위문화에 지속적인 소속감을 표현하는 집단과 달리 클럽을 즐겨 찾는 사람들(Clubber)은 의복과 음악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이 되는대로 따라 한다. 클럽문화를 향유하

는 클러버들에게 클럽 공간의 지배 문화의 규범과 상징으로 가득 찬 기존의 사회에서 여가와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시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클러버들은 클럽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록 마술적, 상징적 수준이긴 하지만 자아 정체성의 성취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는 구조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클럽문화는 고유의 ‘음악’과 ‘춤’과 ‘사람’과 ‘대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클럽공간을 매개로 생성, 공유, 변화되는 독특한 스타일의 청년하위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 2. 클럽문화의 성격

클럽의 밤은 끊임없이 스타일을 수정하고 장소를 변경하며 클럽 문화는 지금 무엇이 힙(hip)하고 쿨(cool)한가에 의존하고 패드 적인 성향을 보이며 파편화 되어있다.<sup>20)</sup> 클러버들은 클럽, 파티, 쇼 등에서

만화 주인공, 영화 캐릭터 등으로 분장하고 환상의 나래를 펼친다. 언더그라운드 파티는 환상을 위한 열린 포럼과 같은 깡러리가 되었다. 현실이 초현실이 되고 걸치레의 의도는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려는 역할을 통해 옷을 입고 행동하면서 만화의 이아가 현실이 된다.

이러한 클럽문화는 먼저 청년 하위문화적인 성격을 띤다. 일반적으로 부모문화와 상이한 취향과 스타일을 통해 형성되고 기존 문화에 대한 불안정치를 표현한다. 또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적 성격을 띤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비제도권에서 생산, 유통되는 음악이며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소수의 대중에 의해 수용되는 실험적인 음악이다. 특히 클럽에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행해지며 음악과 함께 발전하였다.

홍대의 클럽문화는 비슷한 음악적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친밀감을 나누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취향문화와 파티문화적인 성격을 띤다. 클럽데이를 통한 발전에 힘입어 더욱 파티문화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새로운 문화가 기획, 실험, 창출되어지며 이는 음악문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홍대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홍대 클럽문화는 지역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창출한다.

### 3. 홍대 클럽문화

1990년대 우리나라의 클럽문화의 등장은 청년문화의 새로운 사고공간을 지시해 주었다. 특히 홍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클럽은 대학가 청년문화로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클럽문화는 크게 보아 네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출수 있는 '하우스 문화공간'의 전형인 형태이고 둘째는 언더그라운드 록 그룹들의 공연이 행해지는 공간이고, 셋째는 재즈와 아트록과 같은 고급 대중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고공간이고, 넷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하우스 문화 공간과 '드럭', '프리버드', '블루데빌'과 같은 홍대 앞의 언더그라운드 공연 공간에서 보여주는 클럽문화이다.

그러나 한국의 클럽문화 공간은 아직까지 그러한 자유를 누릴만한 정체성이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드럭'에 오는 주체들은 옛된 중학생들부터,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은 모범생, 그리고 고급의상을 걸쳐 입은 오랜지족, 한없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추락자들

까지 다양하다. 일부 주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 공간의 관찰자이다. 그래서 하위문화 공간으로서의 우리의 클럽문화의 현재적인 위치는 소비 공간 이상의 지위를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림 10> 홍대클럽정경, 서울 홍대, 200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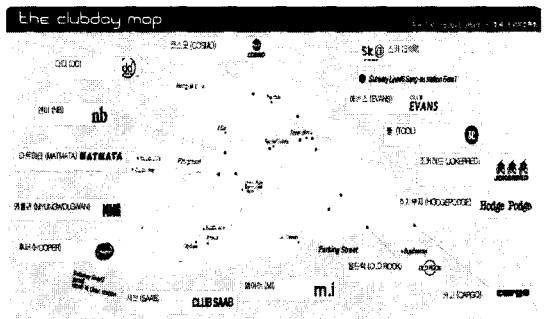
<그림 11> 홍대클럽정경, 서울 홍대, 2003. 9.

#### 1) 홍대 클럽

- ▶ 94년 '드럭'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미지를 진두에 내세우고 홍대지역에 등장
- ▶ 신촌과의 지리적 인접성, 기존의 홍대의 자유롭고 젊은 마인드
- ▶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라는 하나의 공간을 형성

#### 2) 홍대 클럽 현황

- ▶ 전국의 클럽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적 공간
- ▶ 2000년 '블루노이즈'에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 클럽 경우 전국적으로 28개 클럽이 운영
- ▶ 지역적으로 서울이 전체 클럽의 68%인 19개 업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음악의 장르로는 펑크, 하드코어, 발라드, 하드록, 데스메탈, 힙합, 테크노 등 공연



<그림 12> 홍대 클럽 현황, 클럽문화 협회

#### IV. 홍대 클럽문화 스타일 분석

클럽 스타일은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가 슈퍼마켓의 선반 위의 제품들처럼 존재하는 '스타일의 슈퍼마켓(Supermarket of Style)'이며, 클럽에서는 스타일의 부활은 의도적인 재생산으로 동일시되는 키치(Kitsch)와 혼성모방(Pastiche)의 형식으로 일어난다. 즉, 모든 하위문화적인 상징은 그 본래의 의미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공허한 환상이 그 의미를 대신한다. 클러버들은 히피, 모드, 펑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문화, 팝문화, 하위문화를 스타일의 대상으로 삼는다.<sup>21)</sup>

클럽문화 스타일은 하위문화 주체로서 그들의 스타일이 갖는 실험성과 현장성과 자연스러움에 관한 것이다. 연출된 스타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타일, 소비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생산하는 스타일이 클럽문화 스타일이 갖는 특별한 의미이다. 스테이지의 스타일이 일상의 스타일이 되고, 정형화된 동시대의 스타일의 코드들을 거부하는 실험적이고 유동적인 스타일을 생산하는 것이 클럽 웨어라고 할 수 있다. 클럽을 중심으로 음악, 춤, 패션을 선도하는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음악과 춤, 패션을 통해 독특하고 개성있는 스타일을 창조한다. 나이와 성별을 파괴하고 개성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스타일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문화 코드를 합성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청년 문화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클러버들이 일상복으로 클럽을 찾아 즐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홍대 클럽을 찾는 클러버들은 특별히 클럽을 위한 의상을 고집하지 않고 일상복을 그대로 클럽웨어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홍대 클럽들의 주된 드레스 코드가 힙합임을 감안할 때 홍대 대학가 주변의 클럽웨어는 일반적인 청년문화에서 보여지는 스타일과 힙합, 클럽을 위한 의상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 1. Hiphop Style

홍대 클럽에서의 스타일은 주로 클럽의 스타일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힙합클럽이 많은 홍대클럽에서는 힙합 스타일이 많이 보여진다. 또한 최근 청년 하위문화역시 힙합스타일이 자주 나타나며 이러한 일상복으로 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아 힙합 스타일이 많이 보여진다. 힙합 스타일은 음악과 랩, 춤등을 통해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반항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 남녀의 구분이 모호한 유니섹

스 경향이 강하며 빅사이즈의 점퍼나 티셔츠, 청바지, 병거지 스타일의 모자와 수건 등이 주 아이템으로 등장한다.



〈그림 13〉 Hiphop Style, 서울 홍대, 2004. 5.



〈그림 14〉 Hiphop Style, 서울 홍대, 2004. 5.

##### 2. Casual Style

클럽을 이용할 때 특별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상복으로 이용하는 부류도 많이 나타나며 편안하고 무난한 보편적인 스타일이 보여진다. 힙합 스타일과 비슷하게 남녀의 구분이 모호하며 인체를 속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실루엣의 유니섹스 스타일로 구분 지어진다. 넉넉하고 편안한 면바지, 옥스퍼드 셔츠와 모직 재킷, 가디건, 베이직한 청바지, 다양한 스니커즈 등이 주 아이템으로 보여진다.

##### 3. Mix and Match Style

클럽문화를 이끄는 클러버들은 남보다 앞선 패션을 추구하며 개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 문화가 다양하게 절충되어 나타나며 스타일의 경계가 무너지는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과감한 디자인의 상의와 함께 리폼한 청바지와 스포츠 룩의 영향인 트레이닝 바지 밀리터리 패턴의 바지가 공존한다. 클럽을 찾는 여성들의 스타일은 최근 유행인 로맨틱 스타일의 요소가 키치 스타일과 함께 나타난다.





〈그림 15〉 Casual Style, www. KOREANFEEL.com, 2004. 5.



〈그림 16〉 Casual Style, www. KOREANFEEL.com, 2004. 5.



〈그림 17〉 Mix & Match style, 서울 홍대, 2004. 5.



〈그림 18〉 Mix & Match style, 서울 홍대, 2004. 5.

## V. 결론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클럽문화는 20세기 하위문화에 그 배경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Rocker의 가죽의상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의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밤의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Mods와 Psychedelic은 밤의 문화와 향락이라는 의미에서 클럽 문화의 근간이 되는 하위문화이다. 1960년대에 등장

한 Hippies는 그 스타일에서 1990년대 이후 하위문화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위 슈퍼마켓 스타일로서 여러 스타일의 혼재는 히피의 레이어드 스타일과 개인의 취향을 믹스 앤 매치로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Punk와 Perve, Goth 는 그 저항적인 면이 주류문화에 위협적이고 거부감이 컸음으로 지금은 그 아이템이나 일부 액세서리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 New-romantic와 B-boyses & Flygirl은 그 스타일의 면에서 코스프레 문화와 힙합 문화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클럽웨어로 보여지는 클럽문화의 스타일은 스테이지의 스타일이 일상의 스타일이 되는 스타일로서 정형화된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클럽을 즐겨 찾는 사람들 (Clubber)은 의복과 음악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을 되는대로 따라 한다. 즉 클럽버들은 클럽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해 내고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비록 미술적, 상징적 의미로 사회로부터 받는 구조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히피, 모드, 펑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문화, 팝문화, 하위문화를 스타일의 대상으로 유동적인 클럽웨어를 만들어 낸다.

본 연구에서 서구의 하위문화 집단은 패션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가치 체제가 사회 체제 속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문화에 대한 분석이 따른다면 우리는 충분히 미래의 패션이 가진 문화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하위문화는 항상 통일된 주제, 일관성 있는 관점이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정확한지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젊은 소비자들 이 흥분과 에너지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청담동이나 대치동 등을 제외하고 홍대 클럽을 중심으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진행되어 전반적인 우리나라 클럽문화의 경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대학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클럽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중심문화가 되고 있는 클럽문화 스타일을 외국의 클럽웨어와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엘리자베스 루즈 지음, 이재한 옮김 (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서울: 시지각, pp. 388-389.
- 2) 양미경 (2002).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
- 3) Ken Gelder & Sarah Thornton (1997). *The subcultures reader*. London: New York: Routledge, p. 373.
- 4) Zasha Takamura (1997). *Roots of Street style*. Graphicsha Publishing Co., pp. 86-87.
- 5) Valerie Steele (1997). *Fifty years of fashion*. Yale University Press, p. 58.
- 6) Amy de la Haye & Cathie Dingwell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V&M museum, p. 11.
- 7) 임은혁 (2002). 199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5.
- 8) 위의 책, p. 36.
- 9) 네이버 백과 사전 - 핑크
- 10) 임은혁. 앞의 책, p. 44.
- 11) 양미경. 앞의 책, p. 94.
- 12) Zasha Takamura. *op. cit.*, pp. 178-179.
- 13) 이레지나 (2001). 한국 청소년 문화에 나타난 Hip Hop 패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4.
- 14) 자료출처: <http://members.tripod.lycos.co.kr/trie/underculture.htm> 자료 검색일 : 2003. 10.
- 15) 자료출처: <http://members.tripod.lycos.co.kr/%7Eepalefire/subcult.htm> 자료 검색일 : 2003. 10.
- 16) 임은혁. 앞의 책, pp. 54-55.
- 17) Clair Wilcox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 & A Publications, p. 46.
- 18) 임은혁. 앞의 책, p. 59.
- 19) 이무용 (2003).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서울홍대지역클럽문화를 사례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6.
- 20) 닉 파운틴, 데이비드 로빈스 지음, 이동연 옮김 (2003). 세대를 가로지르는 반역의 정신 Cool. 서울: 사람과 책, p. 72.
- 21) 임은혁. 앞의 책, p. 60.